

지노믹트리

(228760/Not Rated)

앞으로 계속 발생할 일, 흔들리기보다 핵심만 기억하자

- 지노믹트리 2019년 6월 10일 종가기준 10.14% 하락
- Analyst's Insight: 투자자들에게도 학습의 시간이 필요함
- 지노믹트리 관련 주요 리포트 다시 보기

지노믹트리, 2019년 6월 10일 종가기준 10.14% 하락

- 일본기업의 혈액을 이용한 암진단 키트 상용화 관련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으로 추측됨.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해당 진단키트는 한 방울의 피로 여러 종류의 암을 진단, RNA를 이용한 마이크로어레이 방식, 판정정밀도 95%, 연구단계에서 유방암 5종/대장암 3종의 마이크로 RNA 파악하는데 성공, 이르면 내년시판 가능성이 있음.

Analyst's Insight: 투자자들에게도 학습의 시간이 필요함

- 동사의 주가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 투자자들에게 암조기진단이라는 것이 여전히 생소하기 때문. 투자자 입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동사의 경쟁사인 EXAS도 초기에는 작은 뉴스에도 큰 주가 변동성을 보였음. 그러나 현재는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과 기술, 산업에 대해 학습이 잘 되어 있어 과거에 비해 뉴스플로우에 대해 대응이 잘되는 편임.

- 세계적으로 체외진단 관련 R&D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류의 기사는 계속 나올 것임. 비슷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진단기기 투자의 핵심을 기억해두는 편이 합리적임.

① 임상데이터를 확인하자: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해당기업이 제시한 임상데이터를 찾기 힘들. 일반소비재나 제조업과는 달리 헬스케어는 임상데이터가 없다면 어떠한 평가도 내릴 수 없음.

② 혈액진단 방식은 조기진단보다는 치료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 혈액을 최소화하여 진단하는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민감도가 떨어져 조기진단력이 낮다는 것임. 이번 2019 ASCO에서도 세계적인 액체생검 기업인 Grail이 발표한 임상데이터도 1기암에 대한 민감도는 34%에 불과함. 세계적으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액체생검 기업은 Guardant Health. GH는 혈액을 활용하지만 조기진단이 아닌 치료의사결정용도의 제품이 주력제품임.

동사의 파이프라인은 대변을 이용한 조기진단 제품. 확진용도보다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되며, 검사주기를 단축시켜 진단성능을 높이는 방식임. 해당 뉴스의 기업과는 시장자체가 다름.

③ 한번에 여러 가지 암을 수십만원대의 가격으로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여러 종류의 암을 진단할 수 있는 Universal한 바이오마커는 없음. 현재 임상목적으로 활용되는 암종은 5가지도 되지 않음. 또한 기술적으로도 여러 종류의 암을 찾으려면 NGS방식이 적합하지만 단가가 몇백만원대로 상승함. PCR이나 마이크로어레이 방식은 단가는 낮출 수 있지만 한번에 검사할 수 있는 마커에 한계가 있음.

지노믹트리 관련 주요 리포트 다시 보기

- 2019년 4월 29일: 지노믹트리 사용설명서 (1): <https://c11.kr/190429>
- 2019년 6월 7일: 주목해야할 것은 완화된 밸류에이션 부담: <https://c11.kr/190607>

지노믹트리

앞으로 계속 발생할 일, 흔들리기보다 핵심만 기억하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